

【토론】
【討論】

가정과 지역사회 안에서의
고령자 부양을 위한 여성의 책임과 범위
家庭と地域社会での
高齢者扶養のための女性の責任と範囲

모 선희
牟 宣熹

한국 공주대학사회복지학과 교수

韓国 公州大学社会福祉学科 教授

한국 밝은 노후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모임 대표

韓国 明るい老後を作る人々の集い 代表

家庭と地域社会での高齢者扶養のための女性の責任と範囲



牟 宣熹

韓国 公州大学 社会福祉学科 教授

韓国 明るい老後を作る人々の集い 代表

1. 家族扶養の弱化と社会的扶養の必要性

伝統的に韓国の老人扶養責任は、家庭に在る。しかし現代社会ではいろいろな理由で、家族の老人扶養機能が弱化した。死亡率と出産率の減少、平均寿命の延びで老人人口は増加するが、平均子供数は減少しており、若い世代の扶養負担は急増している。老人扶養費(65歳以上の人口÷15~64歳の人口)は、1980年に6.1%、1990年に7.4%、2000年には10.1%に増え、2010年には14.8%、2020年には21.3%、2030年には35.7%へ急増するものと予想されている(統計庁、2001)。一方、幼年扶養費(0~14歳÷15~64歳)と老年扶養費を比較してみれば、老人扶養の深刻性がより明らかになる。2000年の幼年扶養費は29.4%で、老年扶養費10.1%の約3倍に該当するが、出産率の減少により幼年扶養費は2010年に23.9%、2020年に19.6%、2030年に19.1%に減り、高齢社会である2019年ごろには老年扶養費と幼年扶養費が同じような水準になり、以降は老年扶養費がより高まるものと展望される。しかし女性、特に既婚女性の社会進出増加で、家庭での老人の看護と世話などの責任を担当していた女性人力が不足することになった。また核家族化、老父母扶養意識は弱まり、若者の都市への移動などによる老人単身世帯の増加で、家族扶養機能が限界を露呈し社会的扶養の必要性が台頭している。

2. 高齢者扶養と女性

高齢者扶養が主に長男、息子の責任であったが、この傾向が次第にすべての子供、能

力ある子供の扶養責任へと変わりつつある。老人もまだ老父母の扶養責任を子供に多くは置いているが、以前のように長男の責任という意識は相当減り、子供皆の責任という意識に変わっており、また子供だけでなく、国家や社会の責任、自身が自ら老後を準備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意識が多く増加したものと見られる。従って今や高齢者扶養をただ家族扶養だけに任せてはだめで、国家、社会的次元で扶養問題をともに解決する方法を模索しなければならないだろう。

しかしまだまだ家庭内で老人を実際に扶養しているのは女性(嫁、娘)である。主に中年女性が舅姑を扶養しているが、これからは平均子供数の減少で舅姑だけでなく実家の父母も皆世話しなければならない実情である。また平均寿命の延長で、60代の老人層は自分が扶養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対象でありながら、同時に生存する80代の老父母に対する扶養も責任を持たなければならない立場である。実際に60代女性老人の場合、自分も病弱でいろいろな困難がありながらも寝たきり状態の配偶者を世話しながら、同時に80代、90代の舅姑を扶養する辛い状況もたびたび発生する。一方地域社会で行われている代表的な社会的扶養である家庭奉仕員派遣も、大部分女性がボランティアや有給職員として活動しており、日本の場合、相当数の介護者が男性であるのに比べ、韓国は大部分女性が高齢者の扶養を担当している。

3. 扶養形態と家族／地域社会の役割分担

韓国の老人の居住形態は、既婚の子供との同居は減る一方で、子供と別居し、老人ひとりまたは老夫婦だけで暮らす老人単独世帯の比率が増える趨勢であり(全国調査結果は40%以上で、農村地域は60~70%に達している)、このような傾向はこれからも継続するものと展望される。農村地域では、子供の職場問題で別居する傾向が高いが、都市では気が楽なので子供と別居している比率が高い。特に老後に経済的に自立できるならば結婚した子供と別に住むことを希望している。しかし健康悪化、経済的困難、配偶者喪失など、危機状況では子供の世話を当然として期待しているものとなった。これは韓国にはまだ老年期の生活を保障する社会保障政策と制度が不足しているためであるが、老人が家族に扶養を依存する性向が高い点も考えなければならない。また留意しなければならない点は、老人の中で男性より女性が数的に多く平均寿命も高く、女性が死別で一人で暮らさなければならない可能性が高く、実際に老人問題の相当部分は高齢後期の女性の問題であり、彼女らの経済的後保障、扶養保護のための政策が必要である。

現在の老人世帯は若い時に子供の教育費、結婚費用などで自分の老後対策が充分でなく、子供に経済的、心理的に依存する傾向が高い。よく老人扶養を身体的(サービス)、

経済的、精神的(心理的)扶養の3つに区分されるが、身体的扶養は病の介護、家事支援、外出同行などで、経済的扶養は小遣いとか生活費の一部支援、物品支援などを、情緒的扶養とは老人の話し相手や相談相手などを意味する。

このようなすべての扶養が、現在は絶対的に家族により提供されているが、家族と地域社会との役割分担がな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具体的にみれば、何よりも身体的な扶養が特に家族扶養の限界により困難を迎えており、社会的支援が必要な分野である。経済的な扶養は、現在は子供による支援が大部分だが、今後年金制度の定着で、次第に基本的な老後生活費は社会保険にもとづき自らの老後対策などで準備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だろう。情緒的扶養は基本的に直系家族と友人、隣人など私的に支援される領域であるが、老人単身世帯の増加で地域社会内での情緒的支援も要求されている。

4. 地域社会の高齢者扶養

家族の高齢者扶養機能の限界を克服し、地域社会で高齢者扶養を支援する代表的な制度は、「精神的、身体的な理由で、一人で日常生活を営むことが困難な老人およびその家庭に対して必要な各種サービスを提供することで、老人が地域社会で家族および親しい知人とともに健全で安定した生活が営めるようにし、家族の介護負担を減らすこと」(保健福祉部、2003:72)を目的とする在宅老人福祉事業である。韓国の在宅老人福祉は1987年韓国老人福祉会の家庭奉仕員派遣サービスで始まり、1989年老人福祉法改訂で家庭奉仕員制度が導入され、1993年の改訂で家庭奉仕員派遣事業、昼間保護事業、短期保護事業を在宅老人福祉事業として規定し法的根拠が作られた(老人福祉法 38条)。在宅老人福祉法は、老人に対する施設保護中心から抜け出し、家庭にいる老人に対する保護と支援の必要性を認識して87年度の家奉仕員派遣事業2ヶ所の試験運営を手始めに、95年に32ヶ所、97年に89ヶ所、2000年に141ヶ所、2003年に505ヶ所(家庭奉仕員派遣施設228ヶ所、昼間保護施設178ヶ所、実費昼間保護施設33ヶ所、短期保護施設66ヶ所)へと次第に拡大実施されている。しかしこのような施設を利用する老人は2003年末で総23,070人に過ぎない実情で、これは老人長期療養保護政策企画団が推定した在宅保護対象の老人(635,126人)の3.6%だけを社会的に保護していることになる。また地域的に都市に偏重しており、実際的に老人人口比率が高く福祉環境が劣悪な農村老人に対する特別な支援策が切実である。

在宅老人福祉事業は今後次第に拡大される展望だが、老人生活施設が絶対的に不足し、施設に対する否定的な先入観がある韓国の現実で、地域の次元で老人問題をともに解決するひとつの代案として重要な事業と評価されている。特に老人昼間保護および短期保

護事業は、挙動の不便な老人と長期療養保護を必要とする老人が増えている趨勢で、老人を家庭の外に誘導し必要なサービスだけでなく、社会的交流を通じた疎外感の解消を図ることができ、老人施設に入所を遅らせたり、連繋する機能も期待できる。

大部分の先進国は、社会福祉が完熟した状態から、即ち必要な福祉施設と政策が用意された中、福祉予算の効率的な使用とサービスの効果的な提供のための新しい代案として在宅福祉が登場したが、韓国は社会福祉の発展過程で、老人人口の急速な増加と家族の老人扶養機能の限界など、時代の要請により在宅福祉が始まったといえる。国家の社会福祉政策および財政が不足する状況で、保護対象者を国家が全部責任を取るには厳しい立場なので、民間部門の役割が強調され、地域社会の人的、物的資源を活用した在宅福祉事業が要求されている。

地域次元で高齢者扶養を支援する在宅老人福祉事業と女性との関係を見れば、実質的に現在の在宅老人福祉事業に投入される主要人材のボランティアもまた大部分が女性である。これはどうかすると家族扶養が社会的扶養へ転換しているようだが、依然として高齢者扶養の責任と役割は女性に与えられているといえる。もちろん自分の父母を直接扶養することから、地域社会の中で助けを必要とするすべての老人を若い人材が助けるという面では社会的な孝の概念の実践であり、これは望ましい変化と思う。

5. 結び

今後、高齢者の扶養保護問題は、老人扶養負担が増え老人単身世帯も増加しており、次第により深刻な老人問題となるだろう。特に高齢後期のための長期療養保護問題は、国家的次元で大きな関心を持って準備しなければならないだろう。専門老人病院および病棟、老人療養施設も増設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と、家庭で生活する老人のための在宅老人福祉事業の拡充および内実化、専門人材の養成など多くの課題がある。このために政府は社会的合意を導き出し、韓国の実情に合う公的老人療養保障モデルの開発と老人扶養保護のための施設、人材、政策方向を構成し、モデル事業と評価結果を土台に日本で導入した介護保険とよく似た老人療養保険を2010年から段階的に導入する計画である。

プロフィール

牟 宣憲 (モ・ソンヒ)

韓国 公州大学 社会福祉学科 教授

学歴

1983年 韓国 梨花女子大学 社会学科

1990年 米国 アイオワ州立大学(Iowa State Univ.) 社会学科 修士-博士

経歴

- 韓国老人問題研究所 責任研究員(1991. 11～1993. 2)
- 韓国 ハンソ大学 老人福祉学科 教授 (1993. 3～2000. 2)
- 韓国 公州大学 社会福祉学科 教授 (2000. 3～2004. 現在)
- 韓国 明るい老後を作る人々の集い 代表 (現在)
- 韓国 大統領諮問 高齢化および未来社会委員会 専門委員
- 韓国老年学会 理事、韓国老人問題研究所 理事
- 韓国 忠南女性フォーラム 福祉環境分科長
- 韓国 忠清南道 共同募金会 企画広報分科委員長

가정과 지역사회 안에서의 고령자 부양을 위한 여성의 책임과 범위



모 선희

한국 공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한국 밝은 노후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모임 대표

1. 가족부양의 약화 및 사회적 부양의 필요성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의 노인부양 책임은 가정에게 있어 왔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가족의 노인부양기능이 약화되었다. 사망률과 출산율의 감소,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노인인구는 증가하는데 평균 자녀수는 감소하고 있어 젊은 세대의 부양 부담은 급증하고 있다. 노년부양비(65세 이상 인구/15-64세 인구)는 1980년에 6.1%, 1990년에 7.4%, 2000년에는 10.1%로 늘어났고, 2010년에는 14.8%, 2020년에는 21.3%, 2030년에 35.7%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통계청, 2001). 한편 유년부양비(0-14세 인구/15-64세 인구)와 노년부양비를 비교해 보면 노인부양의 심각성이 더더욱 분명해진다. 2000년의 유년부양비는 29.4%로 노년부양비 10.1%의 약 3배에 해당되나 출산력의 감소로 인하여 유년부양비는 2010년에 23.9%, 2020년에 19.6%, 2030년에 19.1%로 줄어들어 고령사회인 2019년경에는 노년부양비와 유년부양비가 비슷한 수준이고 이후에는 노년부양비가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나 여성, 특히 기혼여성의 사회진출 증가로 집안에서 노인들의 간호와 수발 등의 책임을 담당하던 여성인력이 부족하게 되었다. 또한, 핵가족화, 노부모 부양의식은 약화, 젊은이들의 도시로의 이동 등으로 인한 노인단독세대의 증가로 가족부양기능이 한계를 드러내 사회적 부양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2. 고령자 부양과 여성

고령자부양이 주로 장남, 아들의 책임이었으나 이런 경향이 점차 모두 자녀, 능력있는 자녀의 부양책임으로 변해가고 있다. 노인들도 아직까지 노부모의 부양책임을 자식들에게 많이 돌리고 있기는 하지만 예전보다 장남의 책임이라는 의식은 많이 줄어들고 자녀 모두의 책임이라는 의식으로 변화되었으며 또 자식뿐 아니라 국가나 사회의 책임, 자신 스스로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는 의식이 많이 증가된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제는 고령자부양을 다만 가족부양으로만 돌려서는 안 될 것이며 국가, 사회적 차원에서 부양문제를 같이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가정 내에서 노인을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인력은 여성(며느리, 딸)이다. 주로 중년여성이 시부모를 부양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평균자녀수의 감소로 시부모 뿐 아니라 친정부모 모두를 보살필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또한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60대 노인층은 자신이 부양받아야 할 대상이면서도 동시에 생존하는 80대 노부모에 대한 부양도 책임져야 하는 입장이다. 실제로 60대 여성노인의 경우 자신도 병약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서도 와상상태인 배우자를 수발하면서 동시에 80대, 90대 시어머니를 부양하는 힘겨운 상황도 종종 발생한다. 한편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사회적 부양인 가정봉사원과건도 대부분 여성인력이 자원봉사자나 유급 직원으로 활동하고 있어, 일본의 경우 상당수 개호인력이 남성인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대부분 여성인력이 고령자 부양을 담당하고 있다.

3. 부양형태와 가족/지역사회의 역할 분담

우리나라 노인들의 거주형태는 기혼자녀와의 동거는 줄어드는 반면 자녀와 별거하여 노인혼자 또는 노부부끼리만 사는 노인단독세대의 비율은 늘어나는 추세이며(전국조사 결과에 의하면 40%이상이며 농촌 지역은 60-70%에 이르고 있음) 이런 경향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촌지역에서는 자식들의 직장문제로 별거하는 경향이 높지만 도시에서는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자녀와 별거하고 있는 비율이 높다. 특히 노후에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다면 결혼한 자녀와 따로 사는 것을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건강약화, 경제적 어려움, 배우자 상실 등 위기상황에서는 자녀들의 보살핌을 당연하게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는 아직 노년기의 생

활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정책과 제도가 미비한 탓도 있지만 노인들이 가족에게 부양을 의존하는 성향이 높은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유의할 점은 노인 중 남자노인보다 여자노인이 수적으로 많고 평균수명도 높으므로, 여자노인이 사별하고 혼자 살아야 할 가능성이 높아서 실제로 노인문제의 상당 부분은 고령후기, 여성노인의 문제이며, 이들의 경제적 노후보장, 부양·보호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의 노인세대는 젊었을 때 자녀의 교육비, 결혼비용 등으로 자신의 노후대책이 미흡하여 자녀에게 경제적, 심리적으로 의존하는 경향이 높다. 흔히 노인 부양을 신체적(서비스), 경제적, 정서적(심리적) 부양의 3가지로 구분하는데, 신체적 부양은 병수발, 가사지원, 외출동행 등이며, 경제적 부양은 용돈이나 생활비 일부 지원, 물품 지원 등을, 정서적 부양이란 노인의 말벗이나 의논상대 등을 의미한다.

이러한 모든 부양이 현재는 절대적으로 가족에 의해 제공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가족과 지역사회와의 역할분담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무엇보다도 신체적 부양이 특히 가족부양의 한계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이므로 전폭적인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이다. 경제적 부양은 현재는 자녀에 의한 지원이 대부분이나 앞으로는 연금제도의 정착으로 차츰 기본적 노후생활비는 사회보험에 기초하고 노인 스스로의 노후대책 등으로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정서적 부양은 기본적으로 직계가족과 친구, 이웃 등 사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영역이지만 노인단독세대의 증가로 지역사회 내에서의 정서적 지원도 요구되고 있다.

4. 지역사회의 고령자 부양

가족의 고령자부양 기능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사회에서 고령자부양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제도는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곤란한 노인 및 그 가정에 대하여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가족 및 친지와 더불어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가족의 수발부담을 덜어주기 위함” (보건복지부, 2003: 72)을 목적으로 하는 재가노인복지사업이다. 우리나라의 재가노인복지는 1987년 한국노인복지회의 가정봉사원 파견서비스로 시작하여 1989년 노인복지법 개정에서 가정봉사원제도가 도입되고, 1993년 개정에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주간보호사업, 단기보호사업을 재가노인복지사업으로 규정하여 법

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노인복지법 38조). 재가노인복지사업은 노인에 대한 시설보호 중심에서 벗어나 가정에 있는 노인에 대한 보호와 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87년도 가정봉사원파견사업 2개소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95년에 32개소, 97년에 89개소, 2000년에 141개소, 2003년에 505개소로(가정봉사원파견시설 228개소, 주간보호시설 178개소, 실비주간보호시설 33개소, 단기보호시설 66개소) 점차 확대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은 2003년 말 총 23,070명에 불과한 실정으로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호정책기획단이 추정한 재가 보호대상 노인(635,126명)의 3.6%만을 사회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또한 지역적으로 도시에 편중되어 있어 실제로 노인인구 비율이 높고 복지환경이 열악한 농촌노인에 대한 특별 지원책이 절실하다.

재가노인복지사업은 앞으로도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노인생활시설이 절대 부족하고 시설에 대한 부정적 선입관이 있는 우리 현실에서 지역 차원에서 노인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하나의 대안으로 중요한 사업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특히 노인주간보호 및 단기보호사업은 거동불편노인과 장기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들이 늘어나는 추세여서 노인들을 가정 밖으로 유도하여 필요한 서비스 뿐 아니라 사회적 교류를 통한 소외감 해소를 도모할 수 있고 노인시설에 입소를 지연하거나 연계하는 기능도 기대할 수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사회복지가 완숙된 상태에서, 즉 필요한 복지시설과 정책이 마련된 가운데 복지예산의 효율적인 사용과 서비스의 효과적인 제공을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서 재가복지가 등장하였으나 우리나라는 사회복지의 발전과정에서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가족의 노인부양기능의 한계 등 시대적 요청에 의해 재가복지가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국가의 사회복지 정책 및 재정이 부족한 상황에서 보호대상자를 국가가 전부 책임지기에는 힘겨운 입장이어서 민간부문의 역할이 강조되고 지역사회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한 재가복지사업이 요구되고 있다.

지역차원에서 고령자부양을 지원하는 재가노인복지사업과 여성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실질적으로 현재 재가노인복지사업에 투입되는 주요 인력인 자원봉사자 또한 대부분이 여성이다. 이는 어쩌면 가족부양이 사회적 부양으로 전환되고 있지만 여전히 고령자부양의 책임과 역할은 여성에게 지워져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자신의 부모에 직접 부양을 하는 것에서 지역사회 안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노인에게 도울 수 있는 젊은 인력이 도움을 준다는 면에서는 사회적 효 개념의 실천이며, 이는 바람직한 변화라고 생각된다.

5. 맺음말

앞으로 고령자의 부양보호문제는 노인부양부담이 늘어나면서 노인단독세대도 증가하고 있어 점점 더 심각한 노인문제로 나타날 것이다. 특히 고령후기노인을 위한 장기요양보호문제는 국가적 차원에서 큰 관심을 갖고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전문노인병원 및 병동, 노인요양시설이 증설되어야 하고 집안에서 생활하는 노인을 위한 재가노인복지사업의 확충 및 내실화, 전문 인력의 양성 등 많은 과제가 있다. 이를 위하여 정부에서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공적노인요양보장 모형개발과 노인부양·보호를 위한 시설, 인력, 정책방향을 구상하고 시범사업과 평가결과를 토대로 일본에서 도입한 개호보험과 흡사한 노인요양보험을 2010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프로필

牟 宣 憲 (모 선 희)

한국 공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학력

1983 : 한국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1990 : 미국 아이오와 주립대학(Iowa State Univ.) 사회학과. 석사 - 박사

경력

- 한국노인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1991. 11 - 1993. 2)
- 한국 한서대학교 노인복지학과 교수(1993. 3 - 2000. 2)
- 한국 공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2000. 3 - 2004. 현재)
- 한국 밝은 노후를 만들어 가는 사람들의 모임 대표,
- 한국 대통령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전문위원,
- 한국노년학회 이사, 한국노인문제연구소 이사,
- 한국 충남여성포럼 복지환경분과장,
- 한국 충청남도 공동 모금회 기획홍보분과위원장